

최후진술_한재각

오늘 재판에서 검사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일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평온함을 훼손하였으며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하였다며, 이를 금지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죄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유를 묻게 된다면, 곤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키려는 현재의 법질서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옆에 나란히 서기를 자청하며, 기후불복종자가 되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두 팔 벌려 검사님을 환영하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지금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판사님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재판은 매일 같이 진행되는 수많은 재판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 앞에 평등하니, 우리의 재판이 다른 이들의 재판보다 더 특별할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거대한 위험, 그리고 재앙을 경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무거운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궁금해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검사의 혐소한 주장에 붙잡혀, 그가 묻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이유 앞에서 검사와 함께 돌아서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현행 법률을 위반한 이들의 지루한 자기 변명으로, 뜻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된 미숙한 이들의 후회할 짓으로 간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어 우리 공동체가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때 그들에게 이유를 묻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이 재판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기후위기 앞에 사회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물어야 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을 향했던 우리 뿐만 아니라, 두산, 포스코, 산업부 등에 맞서 직접행동을 했던 수많은 기후불복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재판들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현재의 법질서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만을 문제삼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그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고발하려는 목소리도 경청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에만 집착한다면, 한 공동체의 생존 능력을 크게 훼손할 논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누구 하나 해치지 않았으며, 기후위기 앞에서 모든 이들을 구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판결에도 이 사실은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지속되는 한, 기후재앙이 점차 현실화되는 한, 우리와 같은 기후불복종자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법원이, 그리고 사회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불복종자들의 말에 귀기울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이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로 차곡차곡 쌓여 그런 변화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변화가 이번 재판에서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법원 판결이 의미없어질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너무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도록 판결해주시시오.

최후진술_김차량

단상 위에 앉아계신 재판장님, 그리고 저의 반대편에 앉아계신 검사님과 저는 지금 우리가 자리한 위치만큼이나 다른 삶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우리의 언어가 서로에게 온전히 와 닿을수 있을지 무척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행성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년 전 저는 우연한 기회로 부산에 거주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가덕도에 한번이라도 와주시라 부탁드립니다. 한번이라도 와본다면 그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생명들을 모두 죽일수 없을 거라고요. 얼마 후 저는 그분의 진심에 이끌려 가덕도에 가게 되었고, 공항 건설로 사라질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마주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자신이 가진 둘레세계 전부가 소멸됨에 마음 아파하며 제발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호소한다면 쉬이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거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림동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위치한 빌라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세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고싶다는 마음은, 누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죽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40도가 넘어가며 기록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뜨거운 아스팔트를 맨몸으로 달리며 배달노동을 하시는 라이더분들이 걱정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역대급 겨울가뭄으로 213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산불에 자신의 삶을 잃고 영영 우시는 할머니가 뉴스에 비춰질 때, 마음이 아파 함께 울고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이 어린 마음들이, 누군가의 슬픔을 모른척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눈물짓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이롭고 정의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제가 민주당사 앞에서 했던 행동의 단편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주거 평온을 일부 깨뜨렸다고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마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당 사무실의 업무시간을 잠시동안 방해 하더라도, 부당하게 파괴되는 어떤 잘못된 일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행하게 합니다.

법이 완벽할 수 없기에 여기계신 판사님과 검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시민으로 가덕도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섬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민주당 사무처 직원들의 주거 평온을 일부 침해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처벌을 받을만큼 부정의한 일인지는 오직 판사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 재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희 여섯명의 최후진술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선고의 재판 전에 제출할 수많은 시민들의 탄원서를 사려깊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 멀리는 유럽, 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시대에 신공항 건설을 염려하는

세계시민들이 정성스레 작성한 탄원의 글을 꼭 읽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심을 꼭꼭 눌러담아 적어내려간 절실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재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마음들을 진중히 사려하시어 역사의 바른 편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후진술_김선철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다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십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써 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가운데 엄청난 환경적 생태적 파괴를 야기합니다. ‘개발’을 쫓아다니는 투기꾼들을 불러들여 이미 가덕도 부동산의 ⅓ 이상을 외지인들이 소유하게 되면서 가덕도와 부산 등 인근 주민 생활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항공 수요 확대를 유도하면서 기후위기 시대 신속히 줄여야 할 탄소배출을 되려 증가시킬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 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을 가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영향 받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또한 국회에서의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생략하다시피 하면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증인과 다른 분들의 증언, 또 의견서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직접행동을 통한 시민 참여의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주장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은 포스코 행사장에서 허락받지 않은 발언을 시도하고 유인물을 나눠줘 벌금형을 받은 녹색당원들에 대해 지난 1월의 법정 판결문에서도 인정된 바입니다. 이 재판부도 우리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했음을 인정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택한 방법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시키며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우리는 온라인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사실을 알리고, 거리에서 피케팅이나 일인시위도 하고, 토론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신고된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등 의사결정권자들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또한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토부 자체 조사 보고서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더 준법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했을까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기후 활동가들은 철로를 막아서기도 하고 도심의 핵심 도로나 교량, 공항 활주로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건물 유리창을 부수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도 허다하고 심지어 송유관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었음에도 가장 평화롭고 가장 피해가

없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강행 통과의 당사자이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보다 평화롭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민주당이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민주당사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이조차 실패했지만요) 내일 모두에게 가해질 어마어마한 피해에 눈감은 채 가덕도 특별법을 강행통과한 민주당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주시시오.

우리는 지난 몇달 동안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서왔습니다. 검찰은 우리의 범죄성을 증명하려 했고, 재판부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로의 위치가 다르고 이해도 상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대 이 땅을,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재판부도 우리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자리에서 만날 기회라도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동료 인간으로서 당신들을 환대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거대한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과 당신의 자식, 그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과 어우러져 보다 생태적이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절절히 희망합니다. 이것이 이 재판이 다루는 우리 행동의 목적이자 앞으로 계속될 우리 행동의 목표입니다.

최후진술_조은혜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6차 대멸종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진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거나 수영을 다녀와 과일을 먹으면서 일기를 씁니다. 해가 쬐 때 산책을 하며, 만나는 새나 고양이, 나무 등 보이는 것들을 그리곤 합니다. 여름엔 바다에 가는걸 좋아합니다. 본가에서 엄마와 저녁먹고 집 앞 하천 산책하는 시간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보이는 일상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원전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청소년활동가는 태풍이 올 때면 밤 새 두려움에 잠에 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반지하에서 한 가족이 모두 폭우로 잠긴 집을 피하지 못하고 물에 잠겨 사망했습니다. 폭우로 지붕위에 올라간 구레의 소들, 산불이 나서 축사에 묶여 산채로 그을려 타 죽은 썰 수 없는 돼지들, 수몰된 양계장의 닭들도 떠오릅니다. 다친 이를 보상하고, 죽은 이를 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때늦은, 사후적인 조치와 공허한 말은 참 놀랄만큼 비슷합니다,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만들어낸 파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와 죽음은 보상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도, 해외 연구기관들도 모두 위험성을 경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앞다퉈 가덕도

신공항을 무조건 지어야겠다고 주장하다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지금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권익을, 모두의 생명을, 우리의 일상을 지키라고 우리를 대표하는 이들이, 생태학살이 자명한 초대형 건설행위, 기후파괴행위를 ‘법’을 만들어 앞장섭니다. 이들이 법까지 만들어 저와 제 일상,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허락된 공간과 시간동안, 허락된 데시벨로 외치면 그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도대체 법까지 만들어 건설을 추진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막아야 하나요? 저와 우리를,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질서와 규칙은 아름답고 소중한합니다. 저도 저만의 일상의 질서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법질서가 시위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으려함은 사회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함일텐데요. 지금의 법 질서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회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려 나선 이들이 범죄자라 합니다.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파괴하려는 이들의 학살행위를 보호합니다. 기후재난을 유발하는 지금의 정치사회경제시스템, 그리고 이 정치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와 우리를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하고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의 ‘관성’이 80억명에 달하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동물, 생태계, 지구 공동체 모두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현 상황에 가슴 깊이 답답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전무후무한 생태학살, 기후파괴를 허가하는 법에 단지 우리 여섯명의 몸으로 저항하고 외치는 일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 동화 같은 일로 회고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

평범한 사람으로서, 계속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위하다 연행되고, 재판받고, 이런 일들은 저의 평범한 일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결정들을 안온하게 바라만 보는 것이 제겐 더욱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멸종반란은 어떤 환경단체도, NGO도, 관리자가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원칙과 가치에 동의한다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운동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와 제 동료들은 학생, 직장인,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며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어 일구고 있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알릴 때 공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멸종반란은 유리를 깨고 비상경보 버튼부터 눌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났다면 구조를 위해 문도 부수고 들어가서 구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주거 침입에 대해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커다랗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공항 건설 행위가 명백히 무수히 많은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는 감각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의 멸종반란 로고는 모래시계를 상징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 건설하고 파괴한다면, 분명히 과학자들이 경고한, 회복이 불가능한 파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공항 건설을 막기위해 행동 했습니다.

기후생태위기, 재난의 시대. 너 한명이 뭘 바꿀 수 있겠냐는 체념과 비관이 베인 말들이 쉽게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범한 이들이 만나고, 너 한명이 아닌 우리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또 어려운 용기를 내야합니다. 어렵게 낸 이 용기를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약속은 그 약속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재판장에 연대와주신 분들과 더불어, 수개월간 함께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님들, 검사님, 법원 공무원님들, 그리고 판사님. 마지막 재판에서야 처음으로, 이제야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겐 낯설은 곳이지만 그래도 이 곳에서,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가, 무사히 살아내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후진술_이은호

판사님 안녕하세요. 피고인 이은호입니다.

저는 늦둥이에,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53년생이시고 아버지는 49년생이십니다. 저는 칠삭둥이로 세상에 일찍 나와서 생존할 확률이 30%였는데요,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좀 애지중지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재작년 5월, 14일 동안 부모님 몰래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P4G 국제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대문 ddp 앞에서 했는데요. 미리 얘기하면 걱정만 하실 게 뻔해서 단식이랑 보식까지 다 마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2주 동안 밥을 굶고 단식을 했나.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저는 부끄럽지만 2018년까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한테 기후변화는 50년에서 100년 뒤 문제, 북극의 북극곰이나 먼 섬나라 선주민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강연에서, 책에서, TV에서 알게 된 기후위기는, UN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지금 당장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넘게 올라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2도씨가 넘으면 산호초 90%가 폐사하고 기후재난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독일에서 184명 이상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 수위가 5m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스페인에서는 폭염으로 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울진 산불, 남부지방의 가뭄, 강남 한복판이 잠긴 115년만의 폭우. 이제 기후위기 앞에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 P4G 정상회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회의였습니다. 슬로건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차차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에 10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 기업, 힘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앞으로는 멋진 말을 합니다. 지구를 살리겠다, 환경을 지키겠다, 탄소중립, ESG를 말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생태학살에 앞장서고, 석탄발전소와 석유, 화석연료 지키기에 힘씁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에 혈안이 돼서, 뭐든지 ‘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빌미로, 무리하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법안 통과 직전인 2월 초 당시 국토부 보고서에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 수요 등 7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가덕도 신공항을 안 된다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우스운 일이죠. 누가 봐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한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공항이라닝

1km당 탄소 배출량은 비행기가 285g으로 가장 많다.
버스가 68g, 일반 승용차는 55g이고 기차는 가장 작은 14g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비행기 탄소 배출량이 기차의 20배가량 된다.

제트엔진 배기가스가 만드는 비행운의 지구가열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5배라고 합니다.
항공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지만, 전체 지구가열의 5~6%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3년에 비해 2017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행과 화물의 예상 증가를 고려하면 2050년에 항공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인구의 약 80%는 1년에 한 번도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1년 동안 약 절반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며 12~15%만이 항공을 자주 이용한다.

한 편의 코미디 같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핌 기사인데요.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의 근거가 된 2030년 엑스포가 기후변화 엑스포라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한답니다. 기후변화 엑스포를 유치한다면서 기후변화 심화시키는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가덕도만이 아니라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좁은 국토에 6개 넘는 신공항을 지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를 이렇게 심화시킨 원인인 경제발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판사님, 과학자들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 온도는 1.5도는 고사하고 2.5도에서 2.7도 오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도 단식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 있는 피고인들은 목에 사슬을 걸고, 캐노피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뉴노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안되는 공항 계속 짓겠다는 생태학살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안 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힘 없는 생명들부터, 평범한 이들부터 먼저 죽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성장을 말하는 당시 공산당과 마르크스의 혁명론을 불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혁명은 기술의 진보를 상징하는 기관차가 아니라,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당기는 비상 브레이크일 것이다.” 법 앞에 호소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길 수 있게, 우리 집에 난 불을 같이 끌 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후진술_곽서린

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영웅도, 투사(斗士)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의 미래를 존엄하게 살고 싶은 20대 청년입니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불안정한 미래를 살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나의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살기 위함이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니다.
그걸 어떻게 폭력이라고 말하고 불법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미래를 빼앗고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그들에겐, 왜 죄를 묻지 않는 겁니까?

‘기후위기를 해결하라’ 라고 목에 쇠사슬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짜 피의자인 민주당 캐노피에 올라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철회하라’라고 외친 우리가 왜 피의자입니까?

-> 우리의 행동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여기는 시민으로서 할 수있었던,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왜 우리는 기후위기시대에 태어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전기세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겁니까?

왜 우리는 기후위기시대에 태어나, 매년 기록적인 한파에 가스요금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 우리는 기후위기시대에 태어나,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닥쳐올 기후재난에 두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초,중,고 12년, 대학 4년, 지난 16년동안 세상이 가르친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왔습니다. 학교와 집에선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빼고, 텀블러를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고, 남은 이면지로 공책을 만들어 공부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라고 설득하고 알렸습니다. 환경동아리를 만들어서 큰 행사가 있을때 마다,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위한 거리 전시를 하고, 친구들의 환경교사가 되어서 환경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법은, 정치는, 국회는, 가진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난 30년동안 또 다른 지구는 없고, 기후변화를 대응하겠다고 말해왔으면서, 왜 지금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생태계는 망가지다 못해 회복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까?

“기후위기는 심각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해야합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한 말들입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심각하다고 깨닫기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때문입니다.

우리를 재판장에 앉힌 검찰과 우리를 피의자라며 죄를 묻겠다는 법원도,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민 불복종 직접행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시민 불복종 직접행동’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 그들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계를 여기 재판장에선 활동가 6명과, 여기 모인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